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가운데)이 5일 오후 세종시 정부세종청사에서 재정의 지속가능성 유지를 위한 한국형 재정준칙 도입 추진 방안과 관련해 브리핑하고 있다. /연합뉴스

# GDP 대비 60% 이내 '국가채무비율' 관리

## 한국형 재정준칙 도입방안 발표

정부가오는 2025년부터 국가채무비율을 국내총생산(GDP) 대비 60% 이내, 통합재정수지는 GDP 대비 -3% 이내로 관리토록 하는 한국형 재정준칙을 도입한다. 다만,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사태처럼 심각한 경제위기 상황에서선 준칙 적용에 예외를 두기로 했다.

기획재정부는 5일 이 같은 내용 등을 담은 '한국형 재정준칙 도입방안'을 발표했다. 재정준칙은 국가채무 등 재정지표가 일정 수준을 넘지 않도록 정한 규범이다. 코로나19와 같은 위기 상황에서 국가재정 지출이 가파르게 증가하는 경우 재정을 사용하는 최소한의 규칙이 된다.

기재부, 제반여건·사례 등 고려 통합재정수지는 -3%에 두기로  
전쟁·경제위기·대규모 재해 등 과감한 확장재정 지원 '예외규정'

우선 정부는 우리나라의 제반 여건과 해외사례 등을 고려해 국가채무비율 기준선을 GDP 대비 60%, 통합재정수지(총수입-총지출)를 -3%에 두기로 했다. 다만 이 기준선을 일정 부분 넘나들 수 있도록 산식을 만들었다.

산식은 국가채무 비율을 60%로 나는 수치와 통합재정수지를 -3%로 나는 수치를 서로 곱한 값이 1.0 이하가 되도록 했다. 하나의 지표가 기준치를 초과하더라도 다른 지표가 기준치를 하회해 일정 수준 이내에 머무르면 재정준칙을 충족했다고 보는 방식이다.

다만 전쟁이나 글로벌 경제위기, 대규모 재해 등 상황에서 과감한 확장재정을 지원할 수 있도록 예외규정을 뒀다. 심각한 경제위기를 맞은 경우 준칙 적용을 면제할 수 있도록 하고, 이에 따른 채무비율 증가분은 첫해에 반영하지 않고 다음 3개년에 걸쳐 25%씩 점진적으로 가산하는 방식이다.

경제위기는 아니더라도 경기 둔화 상황인 경우 통합재정수지 기준을 -3%에서 -4%로 1%포인트 확대 적용할 수 있도록 했다. 단 기준 완화가 상시화되지 않도록 최대 3년의 범위로 제한한다. 비율이 한도를 초과할 경우다

시 한도 이내로 복구할 수 있도록 재정건전화 대책 수립을 의무화했다. 초과세수 등 발생 시 채무 상황에 의무적으로 사용해야 하는 비율은 30%에서 50%로 확대했다. 재정 여력을 비축해야 할 시기에는 건전성 관리를 강화해 앞으로 닥칠 경제위기와 중장기 리스크에 대비한다는 취지다.

정부는 코로나19 상황이 여전히 지속되고 있는 점을 고려해 재정준칙 적용 시점을 2025회계연도로 잡았다. 국가재정법을 개정해 재정준칙 도입 근거를 삼고 산식 등 수량적 한도는 시행령에 위임해 5년마다 재검토한다. 정부가 재정 수반 법률안을 제출하는 경우 구체적 재원조달 방안을 첨부하도록 의무화하는 규정도 담았다. 비용이 수반되는 정책을 만들 때에는 반드시 재원 확보 방안을 함께 마련해야 한다는 페이코(Pay as you go: 돈은 벌어들인 만큼만 쓴다) 원칙까지는 아니지만 기존보다는 한발짝 더 다가선 것으로 평가된다.

전 세계 92개 국가가 재정준칙을 운영하고 있지만 우리는 아직 재정준칙을 법제화하지 못한 상태다. 인구 감소 및 성장률 둔화로 정부 역시 2060년 우리나라의 국가채무 비율이 64.5~81.1% 수준으로 늘어날 것이라고 예고한 상태다. 2020~2024년 국가재정 운용계획을 보면 올해 4차례에 걸친 추가경정예산 편성으로 43.9%까지 올라간 우리나라의 GDP 대비 국가채무는 2024년에 59%에 육박할 것으로 예상된다. 정부는 통합재정수지 적자폭은 올해 -4.4%를 기록하고, 2022년과 2023년에도 -4.0% 수준에 머물 것으로 보고 있다.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이날 정부세종청사에서 가진 브리핑에서 "통상 재정건전성이 합리적으로 확보, 견지되도록 재정준칙을 마련하되 심각한 국가적 재난·위기 시 재정 역할이 제약받지 않도록 한다는 기조하에 우리나라 상황에 맞는 재정준칙을 도입하고자 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정부는 재정 운용과 관련해 재정 책임성도 다하고 재정 지속가능성도 확보하도록 '두 마리 토끼'를 잡는 노력을 최선을 다해 착실히 수행하고자 한다"며 "재정 여력을 탄탄하게 축적해 미래세대에게 든든한 재정을 물려줄 수 있도록 총력을 기울여 나가겠다"고 강조했다.

/한용수 기자 hys@metroseoul.co.kr

# 성인 1인당 연간 닭고기 16kg 먹는다

농진청, 성인 1100명 대상 조사 3년새 연간 소비량 1.2kg 늘어 가구의 71% 주 1회 이상 소비

성인 1인당 연간 약 16kg의 닭고기를 먹는 것으로 조사됐다. 또 가구의 70%는 주 1회 이상 닭고기를 섭취했다. 올해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에 따라 외출이 줄면서 배달 주문이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농촌진흥청(청장 허태웅)이 지난 6월30일~7월24일까지 전국에 거주하는 20대 이상 69세 이하 성인남녀 1100명(가정내 소비 600명, 가정 외 소비 500명)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에 따르면, 성인 1인당 닭고기 연간 소비량은 2017년 조사때보다 1.2kg 늘어난 15.76kg으로 집계됐다.

닭고기를 일주일에 한 번 이상 소비하는 가구는 전체의 약 70.8%로 2017년 대비 5.6%, 2014년 대비 18.2%포인트

증가했다. 또 직장인이나 1인 가구 등 성인의 약 56.3%는 주 1회 이상 집 밖에서 외식으로 닭고기를 소비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가정에서 닭고기를 구입할 때 우선하는 기준은 신선도(63.6%)라고 답했고, 가격(39.9%), 육질(36.9%), 유통기한(29.1%) 등이 뒤를 이었다.

닭고기 부위별로 '닭 한 마리'(15.4%)를 소비하겠다는 응답은 2017년 대비 0.6% 포인트 소폭 상승한 반면, '닭 부분육'(32.8%)을 소비하겠다는 응답은 같은 기간 3.8% 포인트 증가했다. 이에 따라 닭다리, 닭봉, 닭날개 등 부분육 소비가 큰 폭으로 늘어날 것으로 예상된다.

닭고기 소비를 촉진하기 위한 개선 방향을 묻는 질문에 맛과 관련해선 '등급 판정 정보 제공'(83.7%)과 '부드러운 육질'(74.7%)이라는 답이 많았다. 신선도 측면에서는 '유통기한 관리'(93.5%)를, 유통 측면에서는 '포장 방

식에 대한 개선'(95.4%)을 가장 많이 꼽았다.

코로나19 영향을 반영하지 않을 경우 닭고기 소비량은 15.22kg으로 나타나, 코로나19 영향으로 전체 닭고기 소비량이 약 3.6% 증가한 것으로 추정됐다.

특히, 사회적 거리두기 영향으로 집 밖에 나가지 않고 가정에서 닭고기를 배달해 소비한 비율은 11.5%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닭고기를 주로 구입하는 장소(복수 응답)는 대형할인점(86.3%)이 가장 많았고, 이어 기업형슈퍼/일반슈퍼(67.3%), 농축협마트(51.5%), 전통시장(29.8%), 정육점(28.6%), 인터넷(24.0%), 홈쇼핑(7.1%) 순이었다.

2017년과 비교하면 인터넷 쇼핑 이용이 4.6%에서 24%로 크게 증가한 반면, 대형할인점 등 오프라인 이용율은 감소하는 추세다. 코로나19로 인해 닭고기 구입 장소에 변화가 발생했다는 가구는 13.2%였다. /한용수 기자

# 韓-캄보디아 자유무역협정 3차협상 오늘 개최

산업부, 8일까지 사흘간 화상 진행 상품·원산지 등 양허협상 예정

산업통상자원부는 한-캄보디아 자유무역협정(FTA) 제3차 공식협상이 6~8일까지 화상으로 개최된다고 5일 밝혔다.

우리측은 산업부 노건기 FTA정책관을 수석대표로 기획재정부, 농림축산식품부, 해양수산부, 관세청, 산림청 등 관계부처 정부대표단이 협상에 참여한다. 캄보디아측은 상무부 심 소깁(Sim Sokheng) 차관을 수석대표로 경제재정부 등 관계부처 정부대표단이

참석할 예정이다.

양측은 지난 7월9일 한-캄보디아 FTA 협상 개시를 선언한 이후 두 차례 공식협상과 회기간 회의를 개최하는 등 협의를 도출하기 위해 속도감 있는 협상을 추진해오고 있다.

이번 협상에서는 상품, 원산지, 통관·무역원활화, 경제협력, 총칙챗터의 협정문 협상과 상품 시장접근에 관한 양허 협상을 진행할 예정이다.

캄보디아는 2011년 이후 매년 7% 이상 경제성장을 기록하고, 전체인구 중 35세 이하 인구가 72%로 높은 성장잠재력을 보유한 나라다. 지난해 양국 교

역 규모는 10억3000만달러로 전년 대비 6% 증가한 역대 최고치를 기록했다. 수출은 6억9700만달러, 수입은 3억3600만달러로 무역수지는 3억6100만달러 흑자였다. 한국은 주로 화물자동차, 음료, 편직물 등을 캄보디아로 수출하고 있고, 주요 수입품목은 편직제의류, 직물제의류, 신발 등이다.

산업부 관계자는 "한-캄보디아양자 FTA가 기존 한-아세안 FTA에 더해 아세안 시장을 확대하고, 우리기업의 경쟁력을 강화하는 무역환경을 조성해 신남방정책 추진을 가속화하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밝혔다. /한용수 기자

# 산림청, 청년 산림교육... 창업 돕는다

'포레스트 청년 소셜챌린저' 모집

산림청(청장 박종호)과 한국임업진흥원은 10월26일까지 '2020년 포레스트 청년 소셜 챌린저'에 참가할 청년을 온라인 모집한다고 5일 밝혔다.

39세 미만 청년이면 누구나 참가 가능하며, 제출된 지원서와 제안서 등에 대해 실현 가능성, 혁신성 및 파급효과 등의 평가 기준으로 총 7팀을 선정한다. 선정된 참가자는 이달 27일 한국임업진흥원 누리집(www.kofpi.or.kr)에 공지 및 개별 통보된다.

포레스트 청년 소셜 챌린저 사업은 청년을 중심으로 사회문제 해결을 위한 아이디어를 찾고, 산림사업으로 구체화할 수 있도록 창업 교육을 실시해 창업을 꿈꾸는 청년들에게 창업 능력을 배양해 주고, 향후 이들이 사회적기업가로 성장할 수 있도록 단초 역할을 하는 사업이다.

참가자들은 11월 2일~3일까지 이틀 동안 온라인을 통해 창업에 대한 기본 교육(창업 및 사회적기업의 이해, 창업가 정신, 투자유치의 기술, 아이디어



2020년 포레스트 청년 소셜 챌린저 모집 포스터 /산림청

구체화 및 사업계획서 작성 등)을 받고, 이후 팀별 아이디어에 적합한 전담 상담사가 지정되어, 창업에 대한 밀착 상담을 지원받게 되며, 우수팀으로 선발되면 소정의 상품권이 부상으로 지급된다.

산림청 김종근 산림일자리창업팀장은 "이번 경진대회에 산림과 산림 속 다양한 자원을 이용하여 일자리를 만들고 사회문제를 해결하고자 하는 청년들이 적극적으로 도전하여 산림 분야의 가능성을 확인해 보길 바란다"고 밝혔다. /한용수 기자

# 국립산림과학원장 공모 산림청, 20일까지 접수

산림청(청장 박종호)은 고위공무원단 직위 중 국립산림과학원장 및 국제산림협력관을 인사혁신처 중앙선발시험위원회와 함께 공개모집한다고 5일 밝혔다.

국립산림과학원장은 국가연구기관장으로 산림생태계 보전·복원 및 생태계 서비스 기능 증진 연구, 산림자원 선순환 및 산림경영 활성화 연구, 산림재해 관리체계 고도화 등 산림과학기술 연구업무를 총괄하는 직위이며, 국제산림협력관은 해외산림자원 개발 총괄, 임산물 수출입 관세정책 수립, 임업분야 통상협상 등 국제 산림협력 업무를 총괄한다.

공직 내부뿐만 아니라 민간인도 응시가 가능하고, 오는 10월 20일까지 '나라일터'(gojobs.go.kr)를 통해 응시원수를 접수하며, 자세한 사항은 나라일터와 산림청 누리집(www.forest.go.kr) 모집공고에서 확인할 수 있다. /한용수 기자